

오색찬란 숲길·천하절경 입석대... 걷노라면 '황홀경'



4일 국립공원 무등산내 증심사를 지나 중머리재로 오르는 길에 알록달록한 단풍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수레바위산~옛길 코스(14.9km·7시간 20분)

탐방로 구간별 난이도
 ■ 보통 ■ 어려움 ■ 약간 어려움



국립공원 무등산의 탐방로는 61개 노선, 153.9km에 이른다. 이중 수레바위산~옛길 코스는 입석대~서석대를 둘러본 뒤 원효사로 하산하는 최장거리 코스다.

▲이십곡리~수레바위산 구간(4.2km·2시간) 화순 이십곡리에서 시작되는 탐방로를 조금 걷다 보면 너릿재 탐방로로 들어서게 된다. 너릿재는 광주시 동구 자원동 관할 선교동과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를 연결하는 고개다. 무등산에서 남서쪽 수레바위산을 거쳐 지장산으로 내려선 능선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다. 이정표를 확인하고 탐방로를 걷다 보면 전신주와 송전탑 등을 지나게 되고 크고 작은 고갯길도 오르내리게 된다. 용연동 삼거리로 지나 올라가면 수레바위산 계단이 나온다.

▲수레바위산~너와나무장~중머리재 구간(4.3km·2시간 10분)

수레바위산(504m) 정상은 조금 지나면 남쪽 동구리 하산로로 갈라진다. 만연산 능선사거리에도 착하면 우측은 만연사 하산길, 좌측은 너와나무장을 지나 중머리재로 올라가는 길이 나온다. 능선사거리에서 30분 정도 완만한 흙길을 따라 내려가면 너와나무장이 나온다. 너와나무장의 자갈이 깔린 입도를 지나 탐방로를 따라 20분쯤 가면 광주 수창초교 학교림을 만날 수 있다. 중머리재까지 탐방로는 능선을 따라서 완만하게 형성돼 있다.

▲중머리재~장불재 구간(1.5km·50분) 중머리재를 출발해 20분 정도 지나면 용추삼거리가 나오는데 길의 경사가 매우 급한 편이며, 삼거리에서 장불재로 이어지는 길 또한 경사가 매우 급해 중간에 휴식이 필요하다. 장불재는 광주시와 화순군의 경계가 되는 해발 900m의 고갯길로 과

거 화순 동복마을 주민들이 광주를 오기위해서는 꼭 넘어야했던 지름길이다.

▲장불재~서석대 구간(0.9km·30분) 장불재에서 서석대로 향하는 길은 경사가 급하지 않고 주변 식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재데크도 설치돼 있어 크게 힘들이지 않고 오를 수 있다. 입석대와 서석대는 무등산의 대표적인 경관자원으로, 입석대에서 서석대를 거쳐 하산을 할 때는 무등산과 광주시까지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중봉을 거쳐 증심사 방향 또는 옛길을 통해 원효사 방향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서석대~원효사입구 구간(4.2km·1시간 50분) 서석대에서 옛길 2번을 통해 원효사로 가는 코스는 옛 선비들이 다니던 길이다. 원효사까지 가는 최단거리(4.2km)코스로 탐방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탐방로 중간지점까지는 돌길로, 중간지점 이후부터는 흙길로 돼 있다. 가는 길 중간에 물통거리나 주검동유적, 제철유적지 등 험터와 역사문화유적이 있다. 제철유적지에서 원효사 입구까지는 약 15분 정도 소요된다.

탐방전 알아두세요

1. 수레바위산~옛길 2번 코스는 화순과 광주를 잇는 최장거리 코스로, 체력과 일몰 시각 등을 고려해 탐방 계획을 정해야한다.
2. 원효사 입구로 하산할 때는 옛길 2번을 따라 오를 것이 약 4km를 내려오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코스 중간의 험터에서 휴식이 꼭 필요하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㉕ 등산 코스(3)

길 곳곳에 험터·역사문화유적지

화순~광주 최장거리 '옛길 코스'

70m 물줄기 시무지기 폭포 감상

화순·담양 아우르는 '토끼등 코스'

토끼등~시무지기 폭포 코스(11.9km·5시간 50분)

탐방로 구간별 난이도
 ■ 보통 ■ 어려움 ■ 약간 어려움



봉황대 등 유적지를 관찰한 뒤 장불재를 거쳐 시무지기 폭포를 감상할 수 있는 건강코스다. 이 코스는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 이후 광주와 화순, 담양을 함께 아우르기 위해 새롭게 개발한 코스다.

▲증심교~토끼등 구간(1.4km·50분) 증심교에서 왼쪽 방향으로 조금 걸으면 교량이 나오는데 다시 왼쪽으로 틀면 바람재로, 교량을 건너면 토끼등으로 갈 수 있다. 증심교~토끼등 구간은 급경사지와 계단으로 이뤄진 길로, 중간에 있는 험터에서 쉬어가는 게 좋다. 토끼등에는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다.

▲토끼등~장불재 구간(1.7km·40분) 토끼등에서 중머리재에 오르는 구간은 평지가 별로 없는 경사지다. 주로 돌길로 돼 있으며, 중간 지점에는 너털지대도 만날 수 있다. 토끼등에서 10분정도 오르면 봉황대가 나온다. 예전에 봉황을 올렸던 곳으로,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다.

봉황대를 지나 조금만 더 가면 봉황대 사거리가 나온다. 가던 길을 멈추고 숲 길로 100m 정도 들어서면 옛 광주고를 사람들이 기우재를 지냈던 천제단을 볼 수 있다. 천제단에서 20분 정도 가파른 길을 오르면 백운암터를 지나 중머리재가 나온다.

▲중머리재~장불재 구간(1.5km·50분) 중머리재에서 20분 정도 가면 용추삼거리가 나오는데 길의 경사가 매우 급하다. 삼거리에서 장불재로 이어지는 길 또한 경사가 매우 급해 중간에 쉬어가는 게 좋다.

▲장불재~규봉 구간(1.8km·50분) 장불재~규봉 구간은 흙길과 너털지대가 완만하게 형성된 탐방로다. 규봉방향으로 30분 정도 이동하면 석불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나온다. 석

불암에서 15분 정도만 더 가면 규봉암이다.

▲규봉~시무지기폭포 구간(1.8km·50분) 규봉암에서 장불재 방향으로 완만한 탐방로를 따라 30분 정도 걷다 보면 이정표와 함께 시무지기폭포로 빠지는 갈림길이 나온다. 그대로 계속가면 꼬막재를 지나 원효사 방향으로 하산하게 된다. 시무지기폭포는 갈림길에서 우측길을 따라 15분 정도 내려가면 만날 수 있다. 내려가는 탐방로는 중간에 경사도가 심하므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무지기폭포~인계리 구간(3.5km·1시간 30분)

시무지기 폭포에서 인계리로 하산하는 길은 흙길로 완만한 구간이다. 중간쯤 내려오면 작은 골짜기 하나가 탐방로를 가로지르는데 평소에는 물이 거의 없지만 장마철에는 탐방로가 잠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을에 도착한 뒤에도 큰 길 입구까지는 2km를 걸어 나와야 하며 큰길에 용강마을에서 영평리를 잇는 무릎길도 조성돼 있다.

탐방전 알아두세요

1. 토끼등~시무지기폭포 코스는 긴시간동안 탐방을 해야하기 때문에 체력조절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2. 규봉을 경유해 시무지기폭포로 가는 구간은 좁고 경사가 급한 길로 내려가기 때문에 발목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11월 9일 (당일) 해인사 단풍열차 대장경 축제

날 짜	시 간	일 정
11/9	06:30	광주역(06:30분)/극락강역(06:40분)/장성역(07:04분) 정음역(07:25분)/익산역(07:51분)
	12:30	해인사 관광(단풍구경)후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관람
	17:30	해인사 출발
	23:50	익산역(22:40분)/정음역(23:08분)/장성역(23:28분)/ 극락강역(23:40분)/광주역(23:50분)

1인당 개인경비: 성인/경로 55,000원, 소아 42,000원

최초로 공개되는 보물 제222호 마애불입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대원빌딩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 각 역에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후원 KORAIL 광주본부

11월15일 11월22일 (무박2일) 침대열차로 떠나는 부산 기차여행

날 짜	시 간	일 정
11/15 11/22	11:50	광주역 집결 후 탑승
	12:30	광주역(12:30분)출발/극락강역(00:39분)출발/광주승정역(00:49분)출발 서광주역(01:16분)출발/효천역(01:22분)출발/화순역(01:39분)출발
	05:30	통도사 / 용궁사 / 해운대 누리마루 / 자갈치시장 관람
	17:20	부산역 출발
	22:59	화순역(21:48분)/효천역(22:06분)/서광주역(22:12분)/광주승정역(22:27분) 극락강역(22:50분)/광주역(22:59분)

1인당 개인경비: 침대칸 86,000원, 일반칸 66,000원